

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붕, 담장 등을 개축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수토절목(搜討節目)’과 완문(玩文) 등의 고문서가 독도영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울진군은 이곳에 국토영유권 해양역사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2) 백암(白岩) 김제(金濟) 선생과 도해암(蹈海岩)

고려 충절 문신 백암(白巖) 김제(金濟)가 남긴 절명시 2수를 새겨놓은 바위이다. 김제는 고려 공민왕 때 사람으로 1391년 평해군수 재임 중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정으로 망국을 통탄하며 평해 기성면 구산리 북쪽 절벽 밑에서 충절시 2수를 지어 놓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종적을 감췄다. 정조가 백암의 충의를 가상히 여겨 직접 초유제문을 지어 좌승지 이익운에게 구산리 앞바다에 제사를 올리게 하고 백암이 남긴 시 2수를 절벽에 새기게 하였다. 공사로 훼손된 것을 1985년에 복원했다. 김제는 선산 김씨로 예의판서(禮儀判書) 김원로(金元老)의 아들이다. 안동의 고죽서원(孤竹書院)과 울진의 운암서원에 배향됐다.

3) 운암서원(雲巖書院)

운암서원은 1827년(순조 27) 지방 유림이 물재(勿齋) 손순효(孫舜孝), 백암(白巖) 김제(金濟), 백계(栢溪) 김희(金禧)의 학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애초 온정 반암동에 건립됐으며 1835년에 온정 ‘노니실’ 마을로 옮기고 ‘노은서원(老隱書院)’이라 칭했다. 1868년 훼손됐다가 1878년에 기성 구산리 산록에 수일당(隨日堂)을 건립하고, 1930년에 지금의 자리로 수일당을 옮기고 사당인 충절사를 건립했다. 김제는 고려조에 평해군수를 역임했으며 조선이 건국하자 ‘도해시’를 남기고 절명했다. 정조가 해단(海壇)을 세우고 충개(忠介)의 시호를 교시했다.

제2절 기성리(箕城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와 접하고, 서쪽은 기성(箕城)들이 있으며, 남쪽은 정명천(正明川) 하류(下流)로 흑대산(鵠台山)이 있고, 북쪽은 사동리(沙銅里)와 인접해있다. 마을회관이 2009년에 건립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명천 하류에 맞은편 해안과 언덕을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마을의 역사

기성(箕城)은 남북(南北)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의 모양이 배 같이 생겼다 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약 800년 전에 한갑산(韓甲山)이란 선비와 신고연(申高然)이란 선비가 송림(松林) 사이에 자리를 잡고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강원도 기성현(箕城縣) 하정명(下正明)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기성리(箕城里)라 불렀다.

3. 가구 분포

총 145세대가 거주하며 안동 김씨(安東金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진주 강씨(晉州姜氏) 등이 주종을 이루며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기성용추(箕城龍湫)

흑대산(鵠台山) 밑 고을에 가뭄이 심하면 수령(守令)이 정결하게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던 곳이다.

2) 어사대(御使臺)

흑대산(鵠大山) 옆에 있는데 음봉(音峯)이 흑란(鵠卵)과 같고, 사람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주변의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옛날 어사(御使)가 이곳에 올라와서 유람(遊覽)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해망봉(海望峯)

해발 200m의 봉우리로 마을 북쪽에 있다. 주민들이 이 봉우리에 올라 고기떼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4) 해신당(海神堂)

풍어(豐漁)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당(堂)이다.

5) 흑대산(鵠台山)

해발 300m의 산으로 450년 전에 아계(鵠溪) 이산해(李山海) 선생이 이곳에서 등대(登

台)라는 시(詩)를 읊을 때 따오기라는 새가 와서 울었다 하여 흑대산(鵲台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제3절 다천1리(茶川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정명1리(正明一里)와 접(接)하고, 서쪽은 다천2리(茶川二里)와 인접(隣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1리(黃堡一里), 북쪽은 황보리(黃堡里)와 접(接)해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2014년에 다천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

2. 마을의 역사

1550년에 박성후(朴成厚)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김응조(金應兆)라는 선비가 이곳에 이거(移居)하면서 하천(河川)에 다초(茶草)가 많다 하여 다천(茶川)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6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조선시대 명종(明宗) 때 삼성(三姓)이 돌무덤을 만들고,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어 매년 제사를 올렸다 하여 지금도 제향(祭享)을 올린다.

2) 윗들

집 뒤에 큰 들이 있는데 윗들이라 하였다.